사회적 임팩트 투자를 통한 웰니스 이코노미의 발전적 전개
– 금융기관의 고령자용 디지털 서비스(Agetech)의 에코시스템 형성 사례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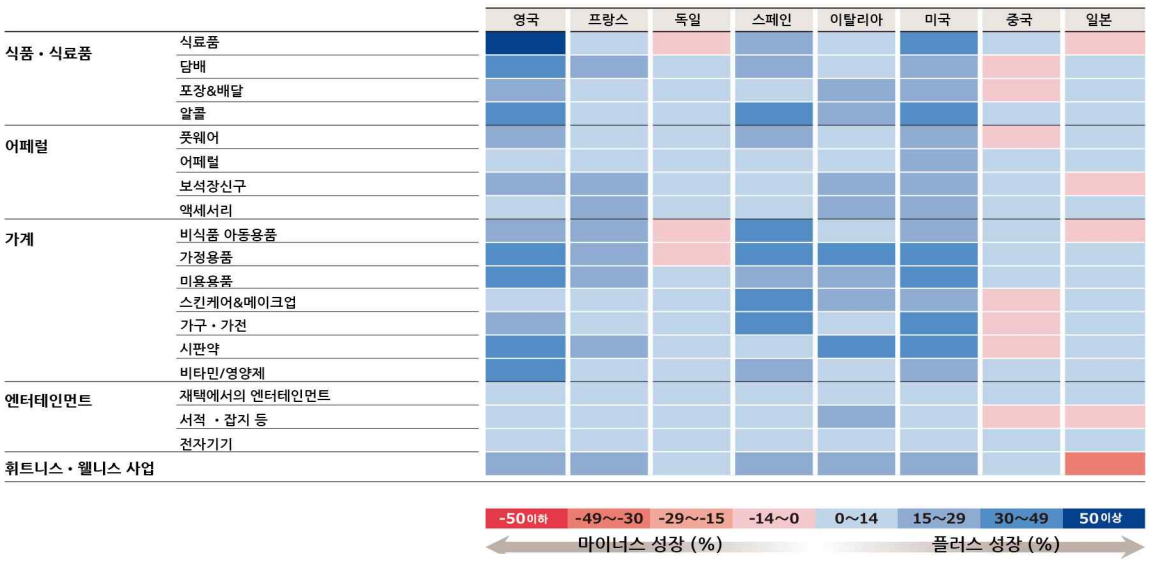
와카토모 치호(若友 千穂)
Nomura Research Institute Europe Limited Executive Director Head of Research and Consulting

Ⅰ. 시작하며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개인의 행동에 있어 많은 제약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쳤다. 비즈니스와 커뮤니티에 있어 생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심신이 모두 건강하고 커뮤니티 전체가 풍요로우며, 자율적으로 일상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 비즈니스에 대한 인식도 기존의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만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가 서로 영향을 주는 에코시스템을 통해 커뮤니티 전체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전체 최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2차 감염 확대로 인해 수차례의 락다운을 경험한 유럽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위생에 대한 우려와 오프라인 점포의 영업 중단으로 인해 식료품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였다[그림 1]. 이는 소규모 업자의 온라인 결제 및 서비스 범위의 확장과 실시간 모니터링 툴의 침투 등과 같은 서비스 인프라가 정비된 점에 기인한다. 소로트(Small Lot)로 고빈도 거래를 하거나 유연한 루트를 쉽게 설계할 수 있게 되어, 생산자-도매업자-배달업자

[그림 1] COVID-19 이전 수준과 비교한 온라인 구매 마켓의 성장률 (추계자료)



출처)ShopperTrak, Mackinsey&Co.등 공개정보에서 NRI작성

－점포－소비자 간의 새로운 서플라이체인이 구축되었다.

예를 들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만질 수 있는 청과물을 식품 도매에서 직송하는 서비스나, 어쩔 수 없이 휴업하게 된 고급 레스토랑의 풀코스 메뉴에 대한 광역 배달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점포 휴업에 따른 과잉 식재료에 대한 폐기 로스를 경감하면서 현금화하기 위해, 실제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를 조달원에서 택배로 보낸 뒤 같은 식재료로 쉐프와 동시에 조리하는 서비스 등과 같이 부가가치가 있는 새로운 서비스 채널이 생겨났다. 또한 이동 제한의 영향으로 사람의 운송이 줄어든 택시회사는 루트의 바쁨과 한가함에 맞추어 때로는 사람을 태우고 때로는 식품을 배송하는 등 고정 개념을 바꾸는 방식으로 현금화를 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에는 여전히 문제와 과제도 많지만, 락다운 완화 후에도 안전성과 편리성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 채널로서 실제 점포와 온라인 서비스는 병존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게다가 영국에서는 사회·구조적 과제 해결에 대한 의식이 높아, 전체 스테이크홀더와 커뮤니티를 보다 개선하는 이노베이션에 관해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창조하거나 혁신의 대상을 바꾸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상태를 추구하는(Wellness [미주]) 것에 대한 혁신이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번 팬데믹의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손으로 접촉하는 현금 유통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감염 리스크가 높은 고령자는 엄격한 외출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고령자의 온라인 결제와 온라인 진료 이용이 가속화되었다. 지금까지 고령자용 디지털 서비스는 고령자의 IT 수행능력(Literacy)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점 등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간주되어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효과를 우선하는 투자(사회적 임팩트 투자)의 확대 기조와 웰니스 영역에 대한 비즈니스(Wellness Economy)의 성장으로 인해, 고령자용 디지털 서비스 등의 미착수 영역에서도 에코시스템이 형성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의 고령자용 디지털 서비스의 전개를 예시로 웰니스 이코노미의 에코시스템 전개 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사회적 임팩트 투자 시장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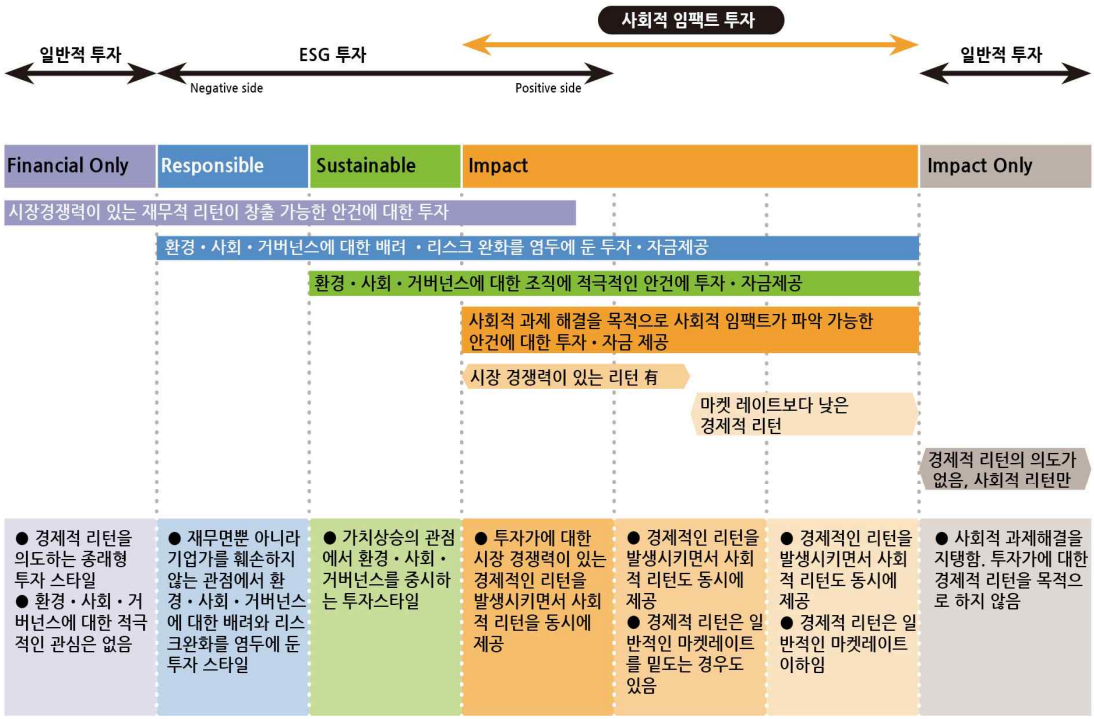
사회적 임팩트 투자란 사회·환경 측면의 과제 해결을 우선하면서 재무적인 이익도 추구하는 투자를 말하며, 이는 리스크(Risk), 리턴(Return), 임팩트(Impact)의 3개의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투자는 단기적인 이익이나 경제적인 리턴보다도 사회·경제적 효과(임팩트)에 초점이 맞춰진 점이 특징이다. 즉 경제적 리턴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투자나, 사회적 리턴에만 중점을 두어 경제적 리턴은 기대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부와는 다르다. 아직 ESG 투자와 유사점도 많지만 사회적 배려와 기업가치의 훼손에 대한 리스크 완화를 염두하는 ESG 투자와 비교하면 마켓 레이트(Market Rate)보다 낮은 경제적 리턴을 허용하고 테마 그 자체와 사회적인 임팩트를 보다 중시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그림2].

투자가들은 사회적 임팩트 투자가 장수화에 기인하는 구조적인 과제 해결과 팬데믹 후의 경기회복 엔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달성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임팩트 투자는 최근 수년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어, 2019년 세계 사회적 임팩트 투자 시장은 추계로 5,020억 달러에 달했다[1]. 사회적 임팩트 투자의 대상은 지금까지는 생활 빈곤자의 구제 등 생활 기반을 다져서

1) The Global Steering Group for Impact Investment(GSG), 임팩트 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서(2019)

Copyright © by Nomura Research Institute, Ltd. All rights reserved.

[그림 2] 사회적 임팩트 투자의 정의와 구분



출처)The Global Steering Group for Impact Investment (GSG) 임팩트 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서(2019년)에서 NRI작성
*본고에서는 '임팩트투자'의 정의를 '사회적 임팩트 투자'로 기재하였고, 그림2의 출처 '임팩트 투자'의 표기를 '사회적 임팩트 투자'로 하였음

출발점에 세우고자 하는 기회균등적인 것이 주류였으나, 현재는 사회 구조상 상정되는 미래의 위기와 기회손실을 줄이기 위한 투자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영국을 대표하는 사회적 임팩트 투자회사 Big Society Capital의 보고서[2]에 따르면, 영국의 사회적 임팩트 투자는 2011년 8억 3,000만 파운드에서 2019년에는 51억 파운드로 약 6배로 확대되었다. 이 마켓의 성장치는 저금리가 이어진 탓에 은행이 개별 융자에서 사회적 임팩트 투자로 자금이 움직인 것이 큰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요즘에 관심이 높은 투자 영역은 개발 초기에서 모네타이즈(Monetize) 구상 단계에 있는 멘탈 헬스 및 아동 비만 등의 병리에 대응하는 헬스케어나 고령자의 미병(未病) 솔루션과 같은 웰니스에 매진하는 혁명적인 벤처 등으로, 2019년에는 이 분야에서 전년 대비 50% 가까이의 성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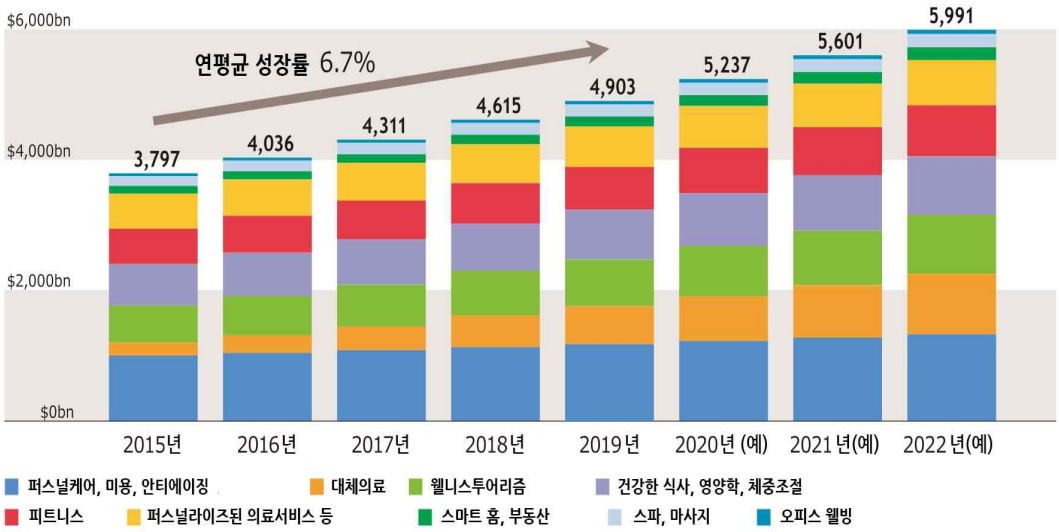
Ⅲ. 웰니스의 필요성 고조

1. 건강하지 못하고 비경제적인 장수 사회

헬스케어와 웰니스와의 차이는 헬스케어가 질병 및 부상의 원인, 진단, 치료에 초점을 맞춘 수동형의 어프로치인 것에 비해, 웰니스는 예방,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현재와 미래의 질병 예방과 극복을 목표로 하는 미병을 위한 능동적인 어프로치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지출의 영향으로 예방적인 어프로치인 웰니스에 대한 주목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2) https://fundraising.co.uk/2020/10/28/uk-sees-six-fold-increase-cocial-impact-investmet-market-eight-years

[그림 3] 세계 웰니스 이코노미 시장 (출처: Global Wellness Institute)



출처) Global Wellness Institute 리포트에서 NRI 작성

세계보건기구(WTO)의 보고서[3]에 따르면 헬스케어에 지출하는 비용은 세계적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7년 시점에서 7.8조 달러로 전세계 GDP의 약 1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으며, 경제 성장을 뛰어 넘는 속도로 헬스케어에 대한 지출 비용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 수명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4]", 즉 '건강하지 못한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 건강하지 못한 기간이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인 중 71%가 만성질환인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에 때문이라고 한다. 개인주의적이며 기술주도적인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은 사회적 단절을 증가시켜 고독, 우울증, 치매,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의 리스크에 높게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 47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제는 장수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율적인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으면서 심신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인생을 끝까지 누리는 것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회적 임팩트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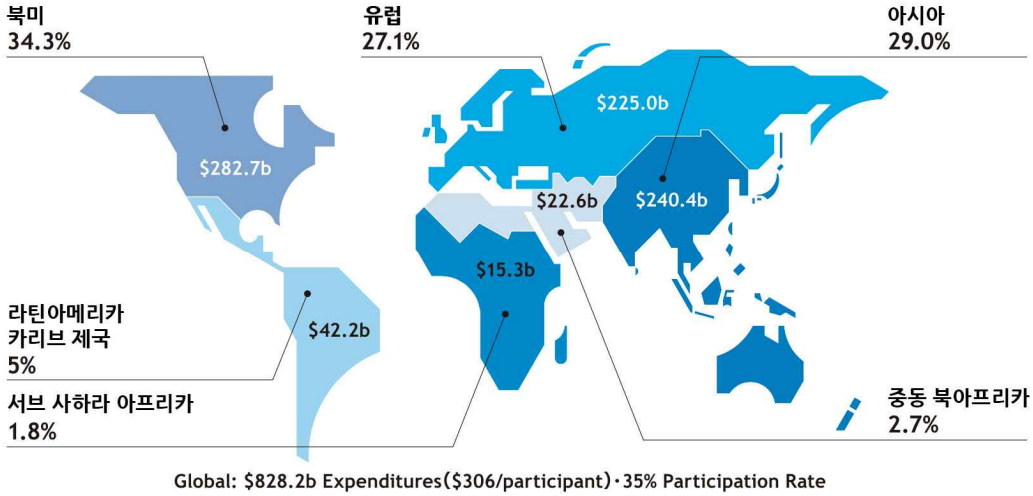
2. 성장하는 웰니스 이코노미

장수화를 배경으로 웰니스 영역의 비즈니스(Wellness Economy)가 성장하고 있다. 웰니스 이코노미란 능동적으로 웰니스를 구축하는 일에 관련된 사업 활동을 말한다[5]. 그 범위는 다양한데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하여 의약품업, 생명보험업, 미용업, 부동산업, 관광업 등 서비스업 전반에 관여되어 있다. 시장 규모는 세계적으로 2015년 이후 연평균 성장율 6.7%로 확대되어 2022년까지 약 6조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성장 마켓이다[그림 3].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WI, Global Wellness Institute)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해 일부 단기적인 영향을 받는 비즈니스 영역도

3) Global Spending on Health: A World in Transition
4) World Economic Forum(2011.9), The Global Economic Burden of Noncommunicable Diseases.
5) https://globalwellnessinstitute.org

Copyright © by Nomura Research Institute, Ltd. All rights reserved.

[그림 4] 세계 웰니스 이코노미(지역별)



출처) Global Wellness Institute 리포트에서 NRI 작성

있지만, 시장전체로는 유리하게 작용하여 퍼스널 케어, 영양, 피트니스, 오피스 웰빙 등 매일의 생활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시장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웰니스 이코노미는 북미, 유럽, 아시아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그림 4]. 그 배경에는 건강에 대해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뿐만 아니라 높은 환경의식 및 고령화 이슈 등 구체적인 사회 문제가 있다. GWI에 따르면 북미 지역의 경우, 음식과 생필품에 대한 오가닉 지향성, 친환경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 고령자 및 비만 비중에 따른 높은 만성질환 발병률이 웰니스에 대한 높은 관심의 주요 요인이라 여겨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고용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종업원의 건강 유지 및 직장 환경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오피스 웰빙의 최대 시장이기도 하다. 유럽은 원래 환경보호에 대한 높은 의식이 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COVID-19에 따른 거듭되는 락다운의 경험 등으로 인해 질병예방, 면역 강화와 같은 건강 지향에 의한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진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대만과 같은 세계 굴지의 장수 국가가 있으며 미병을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예를 들면 웰니스 어플리케이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이 적극적인 점이 특징으로 보여진다.

또한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관심이 높은 장수화 사회에서의 미병 예방과 자율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보내고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영역은 앞으로 3년간 세계 웰니스 이코노미 전체의 성장을 리드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Ⅳ. 영국의 장수명화 사회에 대한 대처

1. 사회적 임팩트 투자와 Agetech로의 전개

국제연합에 따르면 장수화에 따라 2050년에는 치매환자 수가 현재의 54억 명에서 152억 명까지 늘어 세계인구의 16%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과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치매는 환자 수의 증가에 비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공

투자와 민간투자 양쪽 모두 낮은 상황이다. 영국의 알츠하이머 협회(AS, Alzheimer's Society)의 보고서[6]에 따르면 영국의 치매에 따르는 의료비용은 연간 약 260억 파운드이나 치매 연구 개발비는 연간 3만 파운드로, 암 연구 개발비의 2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과거 30년 이상에 걸친 제약회사와 연구기관에 의한 인지장애 치료법의 발견은 지극히 곤란한 상황이다. 치매 연구는 대형 제약회사의 경우라도 개별 회사로는 코스트와 리스크가 높은 대신 리턴을 전망하기 어려워 대부분이 철수한 상태로 민간 기업이 연구 개발비를 들이는 경우는 적다.

지금까지 고령자용 서비스는 '이익이 되지 않는' 비즈니스로 간주되어 투자 대상처로서의 매력이 낮았다. 치매 대책은 긴 개발 사이클에 비해 재무 리턴이 낮은 탓에 투자가가 선호하지 않는 영역이며 과제해결의 우선도는 낮은 상태였다.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HSC,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대형 제약회사(화이자, 일라이릴리, J&J 등), JP 모건에 의해 2015년에 치매에 특화된 치매 디스커버리 펀드(DDF, Dementia Discovery Fund)가 설립되었다. 경제적인 리턴은 적다고 인식한 뒤, 이의 사회적 의식을 위해 개별사 단위로는 대처를 단념했던 치매 영역으로 각사가 공평하게 투자하는 '사회적 임팩트 투자'이다. 일반적으로 바이오 테크놀로지 벤처에 대한 투자 안건의 성공률은 통상적으로 15~20% 정도라고 알려져 있으나, DDF가 매진하는 영역은 성공률이 더욱 낮아(10% 정도), 통상적인 투자보다도 영리화가 어렵다고 전망되고 있다. 영리화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합하는 동업자 등의 이해관계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DDF에서는 자문위원회(SAB, Scientific Advisory Board)가 투자 포트폴리오와 전략적인 관계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DDF는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고령자 지원 단체, 전략투자가가 사회적 임팩트 투자에 폭넓게 참가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펀드는 세계적으로도 그 의의가 주목받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개인으로 5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도 큰 화제가 되었다. 영리화가 어려운 탓에 투자가 추진되지 않았던 고령자용 비즈니스 영역에도 새로운 투자가 발생하여 장수화 사회의 과제에 매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고 있다.

[그림 5] Agetech의 전개테마 (예시)

의료계 서비스	재택케어 및 간호관련	생활 환경 지원	자립적 생활 설계・관리
진단 툴	재택간호	스마트 홈	자산 관리
원격진단	원격간호	택배 서비스	부정 엑세스 관리
원격조제	간호 테크놀로지	모빌리티	디지털 보험
바이오 제약	치매 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퇴직자 케어
신장과학tech	간병인 서포트	웰빙	종말 활동 지원
수면tech	헬스케어 서비스	소셜 커뮤니케이션	고령자 생활 서포트

출처) 각종 공개 정보에서 NRI 작성

6) Dementia-Friendly Financial Services (Alzheimer's Society)

Copyright © by Nomura Research Institute, Ltd. All rights reserved.

또한 영국 정부는 2012년에 'Challenge on Dementia 2020[7]'을 내세워, 대형 은행, Innovate UK[8], 영국 알츠하이머 협회와 함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고령자가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용 디지털 서비스는 사회적 임팩트도 커 주목받고 있다. 고령자의 니즈를 중심으로 설계하여 고령자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Agetech)에는 많은 플레이어가 참여하고 있으며, 고령자가 인생을 마무리 할 때까지 심신이 모두 건강하고 자율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그림 5].

2. 금융기관의 고령자용 서비스와 Agetech의 활용

영국의 싱크탱크인 고령화 분석 기구(Aging Analytics Agency)는 영국의 장수화 사회에 대한 대처를 '인더스트리 전략형'으로 명명하고, 국가와 지역의 주도가 아닌 각 산업의 핵심문제로서 대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9]. 영국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령자의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자산의 80%를 60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자산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금융 비즈니스 및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10]. 경제 전체나 금융기관에 있어 고령자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과제의 해결에 주력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사명임과 동시에 주요 고객의 확보이기도 하다. 영리화가 어려운 장수화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사회적 임팩트 투자 비율을 높여 고령자의 자율화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금융업계의 인더스트리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에서는 고령자를 디지털 서비스 이용으로 유도하는 일는 어렵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유럽의 주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Efma에 따르면, 어느 대형 은행에서는 COVID-19에 따른 락다운 기간인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에 고령자의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크의 이용이 급증했다. 또한 고령자의 등록자 수가 84% 증가하여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그림 6] 영국 은행의 고령자 지원 사례

	교육		테크놀로지	조직	커뮤니티		업계 단체와의 연계
	스텝용	고객용	부정 검출 · 예방	전문 조직 설치	간병인 지원	이벤트	
LLOYDS	스텝 트레이닝	외부 전문 조직에 의한 은행거래 교육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 계좌 동결	전문 조직 설치	Digital Accessibility Centre (DAC)		• Alzheimer's Society • We Are Digital • The Silver Line • Mental Health UK 等
BARCLAYS	온라인 트레이닝	고령자의 디바이스 이용 트레이닝은 전문 부서가 진행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고위험 계좌 특정		간병인 전용 카드 발행	간병인 포럼	• Age UK • 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 Care-giving centres 等
HSBC	스텝 트레이닝	본인과 간병인의 교육	보이스 ID로 부정 검지			알츠하이머 협회와 협동하여 정기적인 자선 이벤트	• Alzheimer's Society • Alzheimer Scotland 等

출처) Age UK, Alzheimer's Society, We Are Ditial 등의 각사 홈페이지, 공개정보를 바탕으로 NRI에서작성

7) 2020년까지 영국을 세계 최초로 치매 친화적인 국가로 만든다는 계획
8) 영국의 혁신 기관으로 비부서 공공기관
9) AAA, National Longevity Development Plans: Global Overview 2019 (1st Edition)
10) Consumers in 50s and 60s feel ignored by brands despite controlling 80% of UK's wealth (Article on Nov. 15. 2014) https://www.campaignlive.co.uk

미이용층의 이용이 210% 증가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모바일 어플을 사용한 정기적인 전자송금(55% 증가), 일상적인 결제(12% 증가) 등 일상 생활에서의 이용이 단번에 증가하고 있다[11].

한편 고령자의 이용 증가는 금융기관에서는 견고한 리스트 대책도 필요하게 된다. 특히 고령자에게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본인의 오조작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간병인과 같은 대리인에 의한 계좌접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이용(개인정보의 부정이용, 피싱 사기 등)을 검출하기 어려운 점에 따른 리스크가 높다. 고령자가 자율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 정비는 고객 확보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코스트와 리스크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기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양면에서 부정예방, 종업원 교육 등의 다방면의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그림 6]. 영국의 대형 은행 Barclays는 18개월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해킹 등을 당하기 쉬운 고객의 프로파일의 해석을 진행하여 1,500만 개의 계좌에 대한 위험 인자를 특정했다. 이 은행은 자선 단체인 Age UK 및 싱크탱크인 국제 장수 센터(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와 연계하여 시인성이 높은 체크카드를 제공하거나 온라인에 자막을 다는 등, 고령자라도 자율적으로 온라인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는 간병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편, 간병인에 의한 불법적인 금전사기 리스크에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간병인이 접근 가능한 범위를 한정하고 실제 점포로의 쇼핑대행 시에만 이용할 수 있는 대행 카드 등도 발행하고 있다.

HSBC에서는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스피드, 억양, 발음 등 본인 고유의 음성으로 패스워드나 PIN을 대체하기 위해 음성 프린트를 작성하여 고령자라도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술로 인하여 HSBC는 2019년에 영국에서 4억 파운드 가까이의 전화사기 범죄를 저지해 큰 화제가 되었다.

3. Agetech의 웰니스 영역으로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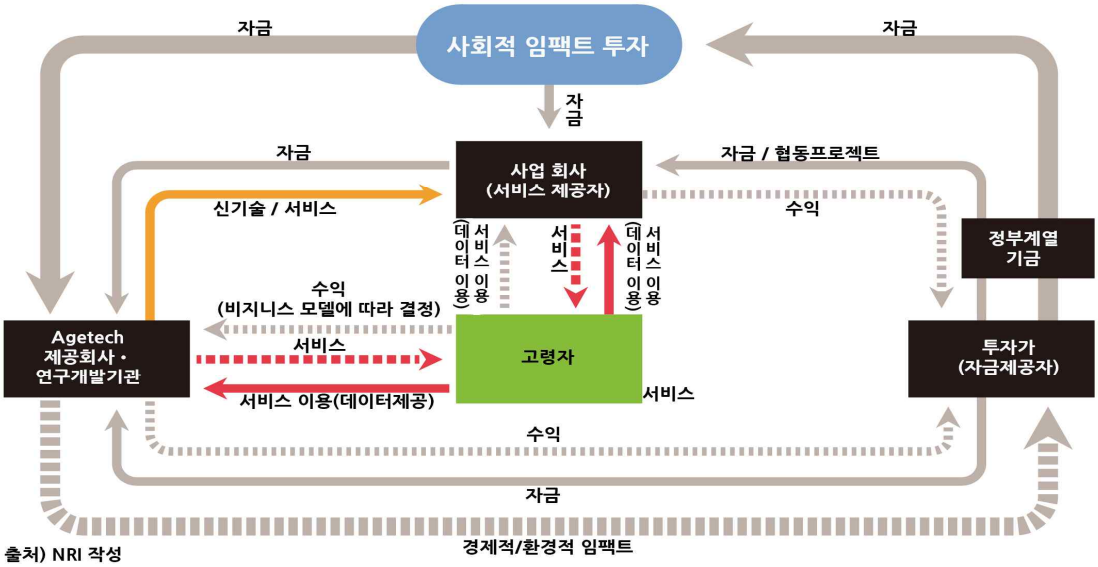
이러한 금융기관의 대처에 활용되고 있는 Agetech는 더욱 발전하여 웰니스 영역의 비즈니스로까지 이어지려 하고 있다. 금융리스크 분석회사 EverSafe에서는 대학과의 협동 연구로 고령자 치매에 대한 조기발견 모델의 개발에 착수했다. 돈의 움직임을 장기 데이터에서 분석하면, 부자연스러운 결제 등의 행동 이력부터 치매의 조기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 오리건 헬스 앤 사이언스 대학과 공동연구를 개시하여 Risktech, Fintech에서 Agetech의 영역으로 진출하였다. 고령자의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 이용이 높아짐으로서 눈의 움직임, 음성, 키터치(Key Touch) 등 복합적인 디지털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치매의 조기 검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동사에 따르면 은행의 거래 데이터는 신뢰성이 높아 장기적인 데이터의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사용해 모델화하기 쉽다고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치매 관련 기술은 각국의 규제와 인허가 사항, 개인정보 보호문제 등의 장벽이 높지만, 조기 발견을 통해 치매의 진행을 막을 수 있기를 바라는 40대, 50대의 중·고년층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금융상품 개발 등 새로운 전개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영국 정부계열의 국민의료보험(NHS, National Healthcare Service) 트러스트는 투자자에게 질병 및 상태의 진단을 돕고 사회전체에 이익을 가져오는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 AI를 활용한 통찰을 얻기 위해 투자를 호소하였고, 이에 HSBC의 음성

11) https://www.efma.com/article/detail/32559

Copyright © by Nomura Research Institute, Ltd. All rights reserved.

[그림7] 고령자 관련 비즈니스에서의 웰니스 이코노미 에코시스템



인식 기술을 개발한 Nuance Communication이 이에 대한 개발 투자를 받았다. 음성에 의한 진료 카드의 기입과 실시간 어드바이스 등 고령자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간병에 지치기 쉬운 간병인들과 서류 확인에 쫓기는 의료종사자 등의 수익자들도 스테이크홀더로 인식하여 이들을 위한 AI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12].

Ⅴ. 웰니스 이코노미의 에코시스템 전개

디지털화가 멀다고 생각되었던 고령자용 디지털 서비스의 개발과 고령자 자신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자산 보호와 함께 치매의 조기발견과 같은 웰니스 영역에 대한 적응의 징조가 보이고 있다. '이익이 되지 않는' 고령자용 디지털 비즈니스가 사회적 임팩트 투자를 통한 자금 투입에 의해 촉진되는 경우도 있고, 부정 방지를 위해 음성인식으로 취득한 음성분석 데이터가 치매의 조기발견으로 이어져, 나아가서는 헬스케어의 지출 삭감과 같은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금융기관의 예를 살펴보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정 거래의 적출과 같은 고객 보호와 리스크 관리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수익자 겸 분석대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고령자에게 있어서는 조기발견과 미병에 그치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임팩트 투자가로서의 은행의 입장에서는 Agetech 각 사의 테크놀로지의 고도화로,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리턴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령자용 웰니스 이코노미 영역의 에코시스템[그림 7]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사회적 임팩트 투자를 활용해서 연구개발이 추진되어 Agetech의 서비스 라인업이 확대된다면 웰니스 이코노미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져, 이 에코시스템은 발전적 전개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Ⅵ. 마치며

팬데믹은 비즈니스, 커뮤니티, 개인의 행동의 제약과 우선 순위에 있어 많은 영향을

12) AI deployments on the rise as NHS invests in tech to deliver improved patient experience (Article, June. 19, 2019) https://www.nuance.com

끼쳤다. 경제적 리턴보다 사회적인 임팩트를 중시하는 사회적 임팩트 투자에 자금이 모이고 있으며,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지는 방향으로 초점이 바뀌고 있다. 비즈니스에서도 고객을 상대하고 이익을 중시하는 사고 방식에서 사회적인 영향이나 커뮤니티 전체의 최적화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본고에서는 영국에서 사회적 임팩트 투자를 활용하여 장수화 사회의 과제 해결을 위한 금융기관의 사례와 이를 웰니스로 연결하는 웰니스 에코시스템의 형성 징조를 소개하였다.

장기화가 예상되는 팬데믹 하에서 사람들의 가치관은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건전하며 사회적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상태(웰니스)가 항상 기능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상대적인 관계에서 당사자끼리가 아닌 스테이크 홀더들 모두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편익을 얻는 에코시스템 시점에서의 비즈니스 개발이 현저해 질 것이다. (完)

[미주]

1) 본고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정의인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but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과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WI, Global Wellness Institute)의 정의인 "Wellness as the active pursuit of activities, choices and lifestyles that lead to a state of holistic health", US Davis의 'Eight dimensions of wellness: occupational, emotional, spiritual, environmental, financial, physical, social, and intellectual'에서의 정의인 "Each dimension of wellness is interrelated with another. Each dimension is equally vital in the pursuit of optimum health. One can reach an optimal level of wellness by understanding how to maintain and optimize of the dimensions of wellness."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웰니스의 정의로 하였다.

필자소개

와카토모 치호(若友 千穂)

전문분야는 금융정책,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비즈니스 모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적 임팩트 투자, 웰니스 이코노미

본 칼럼은 NRI Public Management Reviw 2021년 1월호에서 발췌하여 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처: nri-seoul@nri.com

홈페이지 www.nri-seoul.co.kr의 insight메뉴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호에 대한 전문 및 기사(일본어)는 www.nri.com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본 칼럼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엄격히 금합니다. 모든 내용은 일본의 저작권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by Nomura Research Institute, Ltd.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by Nomura Research Institute, Ltd. All rights reserved.